

민주·공화 경선 항배 결정 ‘분수령’

2차 승부처 ‘미니 슈퍼 화요일’

민주 5곳 전지역 힐러리 우세

공화 플로리다·오하이오 관전

미국 대선 경선 2차 승부처인 미니 슈퍼 화요일은 민주, 공화 양당의 경선 항배를 결정짓는 분수령으로 통한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양당의 경선판이 사실상 조기에 정리될 수도 있고, 반대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공화당의 경우 첫 승자독식제가 적용되는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민주당은 쇠락한 제조업지역, 일명 러스트 벨트(Rust Belt)인 일리노이와 오하이오의 표심이 각각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악판 판세…힐러리-트럼프 전방적 우세=미 정치전문 웹사이트 라이클리어폴리티क्स 집계 따르면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는 각각 5곳, 6곳에서 치러지는 이번 경선에서 전체적으로 우위를 달리고 있다.

먼저 민주당을 보면 평균 지지율 기준으로 클린턴 전 장관이 플로리다(62.0%대 31.1%), 일리노이(53.0%대 39.3%), 오하이오(56.2%대 43.0%), 노스캐롤라이나(54.2%대 33.6%), 미주리(47%대 40%) 5곳에서 모두 샌더스 의원을 앞섰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CBS뉴스-유고브 조사(3월9~11일·756명) 결과 클린턴 전 장관은 일리노이에서 46%에 그쳐 48%를 기록한 샌더스 의원에게 처음으로 역전을 허용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플로리다(41.4%대 루비오 23.3%), 노스캐롤라이나(35.6%대 크루즈 23.8%), 일리노이(34.3%대 크루즈 25.3%), 미주리(36%대 크루즈 29%) 등 4곳에서 1위를 달렸다. 반면 오하이오에서는 케이식 주지사가 평균 35.3%의 지지율을 기록해 33.3%를 얻은 트럼프에 2%포인트 앞섰다.

◇주요 관전 포인트=트럼프 유세장 폭력 사태 영향 주목=이번 미니 슈퍼 화요일의 최대 관심사는 클린턴 전 장관과 트럼프가 대세론을 완전히 굳혀 승부를 조기에 끝내느냐 아니면 2위권 주자들이 선전에 경선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느냐 하는 것이다.

특히 대의원 격차가 워낙 커 승부 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보다는 유동성이 한층 커진 공화당의 결과가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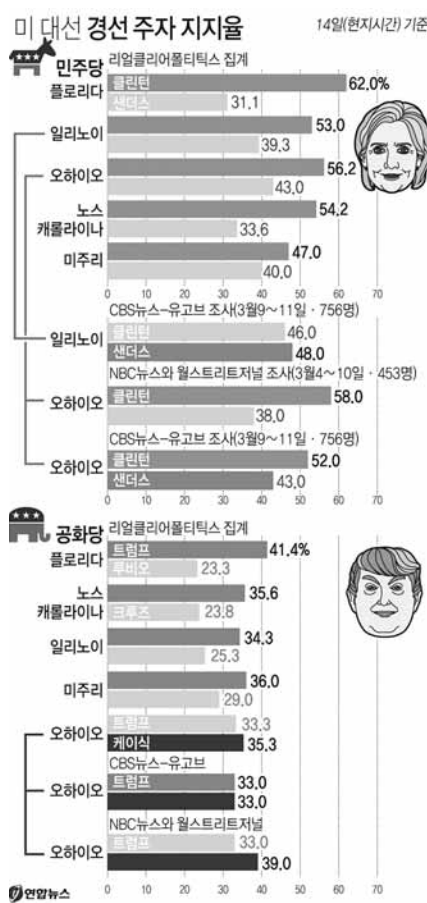
트럼프가 핵심 승부처이자 승자독식제가 처음 적용되는 플로리다(대의원 99명)



13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블루밍턴의 트럼프 유세장에서 시위자가 멕시코 국기를 흔들며 트럼프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와 오하이오(66명) 두 곳 모두 승리하느냐 아니면 이 지역 출신인 루비오 의원과 케이식 주지사가 트럼프를 꺾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트럼프가 두 곳 모두 승리하면 대의원 격차를 더욱 벌리면서 사실상 승기를 굳힐 수 있으나 한 곳이라도 지면 장기전을 각오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공화당 지도부가 사실상 후보를 결정하는 7월 중재 전당대회까지 대비해야 한다. /연합뉴스



여론조사 흐름대로 만약 트럼프가 플로리다에서 이기고 오하이오에 진다면 루비오 의원의 경선 하차 가능성과 함께 경선 판은 트럼프-크루즈-케이식 3자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지난주 미시간에서처럼 같은 러스트 벨트에 속해 있는 일리노이(182명)와 오하이오(159명)에서도 이번을 연출할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조조 간웅

조조(曹操, 155~210)는 안휘성 박주에 해당하는 패국 초현 출신이다. 위나라를 건국했고 유비, 손권과 함께 삼국시대의 주역이다.

그에 대한 인물 평가는 후한 말 인물평의 대가인 허소의 “치세에는 능신이요 난세에는 간웅”이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다. 조부인 조등은 일찍이 환관으로 궁중에 들어갔다. “궁중 생활 30여 년 동안 네명의 황제를 실수 없이 잘 섬겼다”고 한다. 조등의 양자가 조조의 아버지인 조송이다. 부유한 환관 집안에 태어난 덕에 어려서부터 학문에 열중할 수 있었다. 그는 평생 외모와 신분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환관 집안 출신이라는 점, 얼굴이 못생겼다는 점 때문에 가문과 외모를 중시하는 후한 말 정국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4대에 걸쳐 삼공을 배출하고 “얼굴에 위용이 서려있다”는 평을 받은 원소가 최대 라이벌이 된 것은 어

그는 탁월한 정치인이었다. 특히 인재에 대한 욕심이 컸다. 210년 구현령(求賢令)을 반포하여 천하의 인재를 널리 구하였다. “천하에 묻혀 있는 인재를 찾아내라. 오직 능력만으로 천거하라.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중용할 것이다”고 천명하였다. 순유, 순욱, 정욱, 각가, 가후, 최염 등 당대의 인재들이 수도에 몰려들었다. 그의 인재관은 한마디로 불념구악(不念舊惡)이었다. 과거의 원한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적의 편에 있던 가후와 장수를 흔쾌히 받아들였다. 자신의 집안을 능멸한 진림도 기꺼이 참모로 기용하였다. 신분이거나 지위 가문에 상관없이 인재를 발탁했다.

둔전제는 실사구시적 국정운영의 모범 사례다. 전란이 수십년 이어져 인구와 농업 생산력이 크게 줄었다. 군인과 백성들이 기아에 시달렸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민심이 이완되고 천하통일도 도모할 수 없었다. 농토를 개인에게 나누어 주고 수확량

‘흙수저’ 출신…삼국시대 호령한 영웅

쩌면 숙명이었는지 모른다.

그는 20세에 관계에 입문했다. 이후 수도 낙양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로 승진했는데 야간 외출 금지령을 어긴 당대의 실력자 환관 건석의 숙부를 몽둥이로 때려죽여 낙양 주민이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그의 매서운 성품을 잘 보여주는 일화다.

184년 황건의 난이 발생했다. 황건적을 진압하기 위한 의용군에 조조도 참여하였다. 반란 진압의 공으로 산동성 제남국의 장관이 되고 원소와 함께 신진기예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소제가 황제가 되자 생모인 하태후의 오빠인 하진이 실력자가 되었다. 하진은 환관 주살 계획을 세웠지만 실패해 암살되고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그 틈을 타고 동탁이 실권을 차지하고 헌제를 옹립했다.

폭정을 일삼는 동탁을 타도하기 위한 반동탁 동맹을 주도했으며 청주병 30만명을 조직해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하였다. 이후 원술, 유비, 여포 등을 차례로 격파하고 200년 관도 전투에서 원소를 대파해 중원지역을 평정하였다. 208년 적벽싸움에서 유비·손권 연합군과 싸웠으나 대패했다. 위·오·촉의 천하쟁패가 계속되는 삼국 정립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에 따라 징수해 식량 증산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5년 만에 곳간은 가득 찼고 백성들은 생업을 즐겼다”고 한다.

그는 뛰어난 시인이었다. 아들 조비와 조식과 함께 중국 문화사에 우뚝 선 건안문학을 세웠다. “천리마는 늙어 마구간에 매여 있지만 마음은 천리를 치달리고, 열사 비록 몸은 늙었으나 커다란 포부는 그치지 않네.” 유명한 보충하문맹에 있는 시구다. 특히 사언시에 뛰어났다. 청나라 왕부지는 “조조가 지은 시는 매우 뛰어나고 의미심장하다. 특히 노랫말보다 읊음이 감동적이다”라고 평했다. 당시의 비참한 사회 현실을 시로 표현하여 현실주의적 시세계를 잘 보여준다. 자신의 이상을 드러내는 시가 많고 낭만주의적 색채가 강하게 느껴진다. 높은 산에 오르면 시를 짓고, 전쟁터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그의 모습에서 시심에 젖은 대인의 품모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도전에는 한없이 비정했으니 북황후를 죽이고 순욱을 자살로 내몰고 헌제를 핍박하였다. ‘적어도 영웅’이라는 소설가 루쉰의 말처럼 그는 삼국시대를 빛낸 역사의 주역이었다.

해변의 평화 깬 총성…코트디부아르서 유혈사태 16명 사망

알카에다 소행 추정

아프리카의 아름다운 해변이 한가로이 주말 오후를 보내던 외국인들을 노린 무장세력의 잔혹한 테러에 피로 물들었다.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알카에다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무장괴한들이 코트디부아르 그랑바상 해변과 리조트를 공격한 이후 해변에 피투성이 시신들이 널린 참혹한 광경이 목격됐다.

괴한들은 해변을 따라 바다에서 수영하거나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향해 총을 무차별 난사하고 대상을 조준해 총격을 가하기도 했다고 목격자들은 참사를 전했다.

사건 후 알카에다 북아프리카지부(AQIM)는 배후를 자처했다.

특히 이번 테러의 희생자 상당수는 외국인으로,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또다시 외국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16명 중 특수부대원 2명을 제외한 14명은 민간인이며 그 가운데 유

럽인이 4명이다. 하메드 바카요코 코트디부아르 내무장관은 외국인 사망자의 국적은 프랑스, 독일, 부르키나파소, 말리, 카메룬이라고 말했다.

알카에다와 이슬람국가(IS) 등 무장조직들은 최근 터키 이스탄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들을 공격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서방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코트디부아르는 세계 최대 코코아 생산국으로 서아프리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발전한 나라 중 하나다.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알카에다 등 테러 집단이 준동하는 북아프리카와 맞닿아 있는데다 대테러전에 적극적인 프랑스와 관계가 밀접해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테러 다음으로 테러조직들이 공격할 가능성이 큰 나라로 꼽혔다.



아프리카 서부 코트디부아르의 해변 휴양지 그랑바상에서 13일(현지시간) 알카에다로 추정되는 무장 괴한들의 총격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 사건 발생 후 이날 알라산 우아타라(왼쪽) 코트디부아르 대통령이 사건 현장을 찾아 군관계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연합뉴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경매경낙잔금대출지원담당

☎ 062-383-4987
본부장 010-4557-3034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